

4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1996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여호수아, 갈리디아서
빌립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4

1996

가정에배 · 구역에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여호수아,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2.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3.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6.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7.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8.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6년 4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기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서 론

4월 첫주간은 고난주간이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4복음서에 나타난 말씀들을 상고하였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여호수아 13-24장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13-15장까지는 갈렙의 용기를, 16-18장까지는 기업의 분배를, 19-21장까지는 도피성에 대하여, 그리고 22-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본서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 강조하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확고한 태도를 가졌다.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질책했다. 그는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는 일이며 성령안에 새생활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였다.

빌립보서

본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교회의 염려를 없애려고 하였다. 빌립보교회에 분열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성도의 연합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 율법주의적 유대교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 경계할 것을 증거하고 있다.

1

(월) 예수님의 성전의식

찬송 / 332장 본문 / 막 11:15-19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11:17)

본문은 고난주간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흠이 없어야 허락되는 동물들은 제사의 목적을 위해서 매매되었고 헬라와 로마의 화폐는 성전세를 위해 요구되는 반 세겔로 교환되었습니다. 이런 종교시장이 성전 안의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는데 이곳은 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도를 전하는 데 바빠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가는 특히 비둘기 파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가난한 자들이 장사꾼들의 농간에 희생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주 예수님을 슬프게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의자를 둘러앉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제사란 진정한 기도 자체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시 141:2).

오늘날 교회를 과연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식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기도 / 우리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참된 교회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특히 고난주간특별사경회에서 은혜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12:30)

본문은 고난주간 셋째날(화요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중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이에 대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12:30)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인간의 지정의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뒤이어서 언급되는 목숨과 뜻과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목숨이란, 육체적 생명 곧 육체를 활기롭게 하는 생명 또는 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내 걸기까지 전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은 지적 능력, 생각하는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맹목적이고 무지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분명한 이해력과 통찰력으로서 사랑하라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끝으로 힘은 인간이 소유한 총체적인 능력, 그 중에서도 특히 영적, 육체적 활동을 강조한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네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다하여’란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강렬하게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부분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폭적인 사랑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고난주간특별사경회 둘째날을 복주시고, 김창인 원로목사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 346장 본문 / 막14:1-9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14:8)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마리아입니다(요 11:1, 2). 그녀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복음을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친 기름은 값비싼 나드입니다. 한 옥합을 사려고 하면 당시 보통 노동자의 1년 수입과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아낌없이 즐겁게 바쳤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경배 행위는 세 가지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첫째로, 그 집은 기름에서 나온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둘째로 유다가 주동이 된 제자들은 마리아가 돈을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그녀의 친절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밑에서 최선을 다하였을 때, 그녀는 '축복의 물결'이 되어 계속해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사랑을 드렸을 때 그녀는 예수님께 하나의 복이었고, 또한 나드의 향기가 퍼져나갔을 때 그녀는 그녀의 가정에 복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초대교회에도 하나의 축복이었고 온 세상에 축복이 되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가르쳐주고 있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 기도 /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소서. 고난주간특별사경회 셋째날을 복주시고, 우리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담임목사님을 하루속히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26:39)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 목요일에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생생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없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셔야 하는 것을 경감시키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면하고 싶은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고난주간특별사경회 넷째날을 복주시고,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 144장 본문 / 눅 23:33-49

『...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23:34)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박히셔서 6시간 동안 극한 고통과 수치와 버림받은 고독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큰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백성들과 관원들과 군병들이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는 부끄러운 것, 즉 수치인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고, 뼈의 마디마디가 쭈시고 아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죄의 값이요 고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는 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버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또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믿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승리의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여 행악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며 간구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 기도 / 고난주간특별사경회에서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그 결심을 지키며, 우리 위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뒤편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양무리들을 잘 돌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27:66)

예수님은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었으며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닫고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했다고 하면서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체를 도둑질하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 말하면 안된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토요일에 그 시신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므로 부활하시는 주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낮아지신 그대로 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숨이 지실 때까지만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토요일에도 계속 낮아지신 그대로 계셨으며, 하나님과의 단절의 아픔을 가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토요일에 예수님의 고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을 큰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이 예배 준비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온전한 기쁨은, 토요일에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대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대로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 기도 /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 예배의 준비를 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당회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 150장 본문 / 마 28:1-10

7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 (28:6)

예수님께서서는 주일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증거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기쁨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키는 것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으며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말라고 하면서, 찾고 있는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안하뇨” 하셨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사가 말한 것과 같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보내든지 가든지 선 곳에서 동참해야겠습니다.

▶ 기도 / 부활 신앙으로 증인의 삶을 잘 살게 하소서. 교회 직원들이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13:1)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사업이 아직 미완결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완결된 것처럼 땅 분배를 명하고 계십니다(6, 7절). 여기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긴장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적들이 소멸된 풍요로운 정착지를 소유했다면 쉽게 지난 날의 일을 잊어버리고 안일과 퇴폐에 젖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미정복지를 남겨놓으사 항상 긴장의 허리띠를 늦추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사랑입니다(시 75:6, 7). 미정복지로 인한 이스라엘의 정신적 긴장은 오늘날 환난으로 인해 생기는 우리의 영적 긴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둘째,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정복지를 남겨두신 것은 안일과 현실주의 상태를 버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적 삶을 계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지향적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목표 지향적 삶이 결코 쉽고 만만하지는 않지만 인내하며 감당하여 켜지 아니하는 목표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본받지 말고 더욱 긴장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까지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영적으로 긴장하여 하늘 나라를 목표로 전진하게 하소서. 교구 일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화) 삶의 중요한 원칙

찬송 / 377장 본문 / 수 14:1-5

『...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14:5)

본문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큰 일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 몸과 마음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신 32:46).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그가 바로 인생을 복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땅 분배를 위해 제비뽑기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결코 우연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현명하시고 은혜로우신 섭리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성경이 보여 주는 바, 하나님의 직접적인 판결이 필요할 때 종종 사용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완전하고, 무엇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실로 그분은 그 놀라우신 지혜로 자연을 섭리하시고 우주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야말로 행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 행통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는 사업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14:11)

여호수아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갈렙은 끝까지 변함없이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갈렙의 신앙에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온전하게 좇은 신앙입니다. 8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성실히 순종한 자로서의 진정한 자부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말은 바 책무를 다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하게 좇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둘째, 약속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12절에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산악 지대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신 말씀(민 14:24, 30)을 근거로 요구한 신앙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의거한 신앙이야말로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 변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자신의 나이가 현재 85세임을 강조했습니다. 40년 전 갈렙의 외침은(민 14:9) 아직도 변하지 않고 또다시 미정복의 땅을 요구하는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변함없는 그의 신앙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렙의 위대한 신앙, 끝까지 충성하는 신앙을 본 받아야 하겠습니다. 갈렙은 비록 노인이었지만 그의 신앙으로 인해 그의 가슴은 어느 청년보다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며,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변함 없는 신앙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통해 영광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15:13)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 도중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길갈에서 땅분배를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 분배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의 원칙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분배 방법으로 시행된 제비 뽑기는 각 지파의 이기적 탐심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축복의 상급입니다. 분배받은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나안의 적들을 무찌르고, 개척해야 할 영역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이며, 갈렙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땅 분배 때에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자 약속했던 헤브론 성을 간구하였고, 헤브론 성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의 언약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에서 주어진 기업, 나의 가정에서 주어진 기업, 직장에서 주어진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여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 기도 / 충현교회에 큰 비전과 목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신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16:4)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창 49:22-29).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가나안 정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강하고 힘센 지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게셀 지방의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신 7:1-26).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신 후에 각자의 믿음과 능력에 따라 기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신약의 달란트 비유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주인이신 하나님과 계산하는 날이 임합니다.

기업은 성도의 직분, 은사와 재능, 삶의 영역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은 땅에 붙여 두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 나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적들과 타협하거나 혼합주의로 변질되면 성도는 실패합니다. 그 기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행하면 천국에서 큰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정, 구역, 교회,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개척자,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적들이 무섭다고 피하거나, 내 자신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고 적들을 회피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의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들이 만들어 놓은 울무에 넘어지는 불행이 올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바르게 지키고 그것을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각 교구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되어 교회 성장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17:18)

인간의 최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매사를 하나님과 관련시켜 이해하고, 각종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때마다 잊어버리고, 또한 그분을 거부한 채 제 갈 길로 가곤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전투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떨어지게 되니 불행히도 그들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는 철저히 파멸시켰던 가중스러운 우상숭배자들을 이제는 항복을 받고 살려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만큼 신앙적인 분별력을 잃었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받은 땅이 산지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해가는 데 있어서 보다 좋은 환경이라면 더욱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를 맛본 이들이 이제 와서 열악한 환경을 불평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므낫세 지파에게 믿음으로 그 산지를 점령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적인 도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현실에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개척정신으로 전진합시다.

▶ 기도 / 무사안일주의 신앙이 아니라 개척정신을 소유하고 지역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주님의 말씀 전파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18:3)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호수아의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도 치뤄야 할 전쟁이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새 없는 전쟁의 고난 끝에 겨우 얻은 약속의 땅에서 장차 누리게 될 참 기쁨보다는 한낱 전리품을 향유하는 데 만족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의 사명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나태와 무관심을 내버리고 어서 일어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여호수아는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지 못한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각종 범죄로 오염되어 버린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백성을 통한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심신이 피곤함으로 의욕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약 7년간 쉴새없이 가나안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 있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현실에 너무 집착하여 안일무사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꼭 열심을 내서 땅을 차지해야만 된다는 사명감이 부족하였고, 현실의 풍족한 전리품과 명성에 안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는 준엄한 책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국한돼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 기도 /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민족이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19:51)

본문은 앞의 18장에서 시작된 7지파의 기업 분배가 종료되는 장입니다. 본장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므온(1-9절), 스불론(10-16절), 잇사갈(17절-23절), 아셀(24-31절), 납달리(32-39절), 단(40-48절) 지파 순으로 각각 분배된 기업의 경계가 차례로 소개됩니다. 그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과거 약속과 백성들의 동의에 따라 딘낫 세라라는 성읍이 주어지는 장면(49, 50절)이 나옵니다. 이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정확하게 분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날마다 연약함으로, 혹은 악한 욕심 때문에 범죄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구약 이스라엘에게 끌고루 땅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더욱 더 영원하고 크신 신약시대의 구속의 축복으로 우리의 거할 바 천국 기업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요 14:1-3).

또 한 가지 본장에서 인상적인 사실은 가나안 정복과 분할에 있어서 지대한 공을 세운 여호수아가 전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였고, 다만 자신이 거할 성읍 딘낫 세라 하나만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권유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49절). 여호수아는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자신의 공로를 전혀 내세우지 않는 청렴결백한 지도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청렴결백하고 자신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위정자와 공무원들의 마음에 깨끗한 양심을 심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지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너희 중 피의 ...』(20:3)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도피성 설정(민 35:9-34, 신 19:1-3) 명령을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피성 설정 명령과 운영지침을 시달하신 것입니다. 사실 피의 보수법에 따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적의도 없이 부지중에 오살한 자까지 무조건 죽이는 것은 가혹한 처사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수를 위한 살인을 부르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도피성을 설정하고, 우발적인 살인자가 피의 보수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요 6:37, 10:28).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에 피하여 성읍 장로와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허물을 다 고해야 했듯이(4, 6절) 반드시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께 다 고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야 합니다(요 3:16-18).

오늘날 그리스도 역시 인종과 신분과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원의 문을 넓게 활짝 열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 기도 / 허물과 죄악뿐인 우리를 위한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21:45)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단락입니다. 즉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 및 레위인의 성읍 할당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음과 그리하여 저들이 안식케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라든가 혹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당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후 약 690년이 지났지만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변절한단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 안식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히 4:8-11). 그러나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완전히 마치는 날까지 경성해야 하며 완강히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필사의 항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가나안 족속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단의 무리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아직도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도 /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건강(신장)을 하루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22:3)

본문은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의 용사들을 귀환시키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을 불러 장기간에 걸친 정복 전쟁 동안 수고한 공로를 치하합니다(1-3절). 그런 다음 그들에게 권고와 더불어 축복을 하고(4-6절) 여러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조처한 것입니다(7-9절).

이상과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의 형제애입니다. 그들은 다른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소요된 5년이란 긴 기간은 힘들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복 전쟁에 맨 앞에서 활약을 했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지녀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롬 13:9, 10).

둘째, 귀환하는 두 지파 반을 빈 손으로 보내지 않은 여호수아의 미덕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노획한 많은 재산과 가축과 기타 재물을 두 지파 반의 용사들에게 주어 그들의 가족들과 나누어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8절). 사실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그들의 당연한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고 충분히 보상하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은 남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보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 기도 / 우리에게도 마땅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자세를 주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섬기는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23:14)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의 마지막 고별 인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의 시간을 참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에게 남아 있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귀중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1-5절). 둘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을 주지시켰습니다(6-11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길만이 승리가 있고 발전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예고하였습니다(12-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 뜻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에도 여호와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언급한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실이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시종일관 여호와께 순종하며 맡겨진 책무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전제하는 교회당과 선교센터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 (24:15)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겔 성에 불러 모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 들이며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인 대언자의 위치에서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처음 순간부터 최근의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운행자이시라는 것을 힘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제하시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용기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실에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호히 결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겠노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그 표증으로 거룩한 여호와께 성소 곁에 그 언약을 기념하는 기념석을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25-28절). 이와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의 의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의 길로 가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성지연구소 설립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1:24)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파한 복음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신적인 기원을 밝히기 위하여 자신이 이제까지 보여 왔던 회심의 과정과 또 자신이 복음전파에 전력을 기울였던 초기의 행적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순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그때에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새롭게 시행하려고 한다면 가족 친지들과 상의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모든 인간적인 정리에 이끌리기 보다는 먼저 확고한 신앙의 바탕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사도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받기에 급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심히 핍박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기까지 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13-14절).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덮어두고 지나가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기도 /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현지인 선교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2:20)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파하였던 복음의 순수함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신득의(以信得義)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과 자신이 전파한 복음의 공식적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바 있음을 밝히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였고, 더 나아가 외면적으로는 초대교회 전체에 대하여 자신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형은 참으로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가해지는 형벌이었는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단순한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도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 기도 /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힐 수 있는 신앙을 주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을 통해 중국인들이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3:1)

당시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조상 때부터 지켜 오던 규례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리석다' 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눈앞에는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환히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속에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행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믿음 때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1-5절).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으므로,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므로 저주 아래에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약 400년 이후에 주신 것이며, 따라서 4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그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율법은 어린아이의 양육을 맡은 가정교사와 같아서, 아이들이 자라 가정교사에게서 벗어나 그 집의 상속자가 되듯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소서.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으로 모슬렘권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4:31)

아들이라도 정한 때까지는 그들을 맡은 청지기 아래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와같이 구약의 신자들도 그동안 율법 아래서 양육을 받아 왔으나, 하나님께서 때가 차게 되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동안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아들과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요 아들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또 다시 옛날 그들을 묶어 두었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이전에 너희가 나를 존귀히 여기며, 때로는 복음 안에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할만큼 나를 사랑하더니, 이제는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태도를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20절).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게 되기까지 다시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19절). 그리하여 그는 한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은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약속의 아들보다 먼저 태어나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핏박하였는데, 이와같이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녀들을 핏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같이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 기도 / 우리들을 약속의 자녀들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의료사역이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5:13)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우리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므로,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리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 성령의 의지를 따라 행하면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 기도 / 우리가 굳게 서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소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6:14)

바울은 만일 누가 실수나 과오를 범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숙한 신자들이 바로 잡고, 자신들도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을 잘 살피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너무 과중한 짐을 진 사람들이 없는가를 서로 살피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물질을 사용할 때에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투자하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며, 만일 성령을 위하여 투자하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때가 되어 그것을 거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못박혀 죽었으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이 문제로 자신을 다시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는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성령으로 예수님의 소유라는 표시가 찍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 기도 /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 오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으로 복음의 열매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1:21)

본 서신에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구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바울의 마음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참 목자의 마음이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목자의 수고를 따라 모든 성도들은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것입니다.

본문의 중간 이후에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 못지 않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비교하며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오직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의 전생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당할지라도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이 존귀케 되는 축복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은빈 평선도선교사(케냐)의 현지인 선교가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2:18)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온 땅을 흔들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날마다 죽였습니다(고전 15:31).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무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출지라도 주님처럼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하찮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생활을 소중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흠이 없고 순전한 생활이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드리내는 생활입니다. 이같은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빌립보 교인들이 신실한 믿음의 생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에 합당한 생활로 서로에게 깊은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기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허락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일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 』(3:14)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은 바울로 하여금 예전에 유익했던 것을 모두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까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30여년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도 전혀 후회나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지금이라도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풋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삶의 목표가 특별한 사람의 것만이 아님을 알았으면 합니다. 곧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헌신의 삶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배경은 우리의 본질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속해 있음을 아는 것이며, 우리 또한 주님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믿음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풋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풋대를 향할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본질을 다시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시민으로써 살게 하소서. 남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4:13)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은혜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첫째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담겨 있습니다. 평강은 고요함 속에서의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평강으로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만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참 능력은 도리어 어떤 상황에 빠질지라도 그 상황을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같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어 내는 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4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5월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4 과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일곱 말씀들

읽을 말씀 / 요한복음 19장 28-30절
찬 송 / 136장, 144장

콜시카의 싸난 마을에는 해마다 고난일이 되면, 유명한 십자가 행렬을 합니다. 이 행사는 중세기부터 이 마을에서 계속하여 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뉴스위크지 기자가 지난번 행사를 참관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1마일 반을 맨발로 31파운드의 쇠사슬을 끌면서 행진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을 식별할 수 없도록 얼굴에는 마스크를 씁니다. 행진할 거리의 절반도 못가서 십자가를 진 사람의 발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세 번 쓰러졌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던 까닭이었습니다. 비록 1마일 반이지만 그 고통은 형용할 수가 없었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야말로 땀과 피를 쏟으며 이 어려운 역할을 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콜시카의 십자가 행렬을 위하여 십자가를 자진하여 지겠다는 예약자가 이미 40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생각에 가장 좋은 참회의 방법은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콜시카에 안가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대신 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봉사, 헌신적인 생활, 남을 위하여 내가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예수

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됩니다.

이번 금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눅 23:34)?

이 말씀은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린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긍휼이 넘친 예수님의 마음을 표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고전 1:18).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2. 가상2언(架上一言)은 무엇입니까(눅 23:43)?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는 두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는 예수님에게 비방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한편 행악자는 그를 꾸짖고 예수님에게 간구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행악자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복된 죽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즉각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낙원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3. 가상3언(架上三言)은 무엇입니까(요19:26)?

이 말씀은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감히 “여자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나를 더 이상 육신의 아들로 생각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로 모친이 자기를 생각한다면 어머니의 고통은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옆에 있던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기도 했습니다.

4. 가상4언(架上四言)은 무엇입니까(마 27:46)?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터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절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절정입니다.

5. 가상5언(架上五言)은 무엇입니까(요 19:28)?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할 영의 목마름(형벌의 목마름)과 마음의 목마름(죽음의 안타까움), 그리고 육의 목마름(육체적인 목마름)의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6. 가상6언(架上六言)은 무엇입니까(요 19:30)?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며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을 완전(완성)케 하려는 것입니다(마5:17-죄인들을 율법의 제주로부터 속량하심; 갈3:13-율법의 마침이 되심, the end of the law; 롬10:4-율법을 성취하셨음; 행13:39; 엡2:15). 또한 이 말씀은 속죄사역의 완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7. 가상7언(架上七言)은 무엇입니까(눅 23:46)?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생명(영혼)입니다(마 16:26).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는 아버지께로 갑니다(요 1:12).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요 14:6). 영원한 우리의 고향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제목 및 나눔

- (1)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서로 나누어 말해 봅시다.
- (2)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나의 각오를 말해 봅시다.

제 15 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읽을 말씀 / 마태복음 6장 5-13절

찬 송 / 421장, 518장

신자라면 누구든지 암송하고, 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외우기도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의 기도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의 표준적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관한 것과 자신과 이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실현이 나와 교회와 인류의 전폭에 이루어지기를 빌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과 필요와 소원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생명과 생활 필수품의 공급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죄의 씻음받고 고침받고 사함받기 위해 죄 고백과 회개를 일상생활화 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며 사랑할 힘을 간구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욕심과 세상과 악마에게 시험받아 범죄하지 않도록 성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기도는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주기도문은 누구의 요청으로 생겨났습니까(눅 11:1)?

당시 랍비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훌륭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강력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청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문장, 모범적 기도의 형식, 기도에 관한 일반적 교훈까지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까요(눅 11:1)?

이 요청은 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진지하고 감동적이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당신은 그렇게 기도를 진지하게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이미 기도의 모범을 실제적으로 보이셨던 실천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분의 말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로써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

고 있습니다. 입술 뿐 아니라 이해력을 가지고 가슴으로 기도해야 할 내 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인간 본능적 요구입니다. 인간 역사와 함께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은 모든 물건을 섬깁니다. 물신의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도 여러 신들을 말하며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만신, 지신, 산신, 용왕, 해신, 달신, 별신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에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빈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신학자 존스는 “두견새는 밤에 울게 되어 있다. 독수리는 창공을 치솟게 되어 있다. 사람은 기도하게끔 되어 있다. 천국이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이다”라고 했습니다.

3.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눅 11:2)?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속죄함을 받은 교회의 유일한 영감있는 기도문입니다. 형식의 사용이 곧 형식주의는 아닙니다. 형식주의는 형식을 중요시 하지만 주기도문은 그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생명력 없는 형식이 있을 수 있지만 형식 없는 생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7-9)라고 했습니다. 중언부

언 하는 것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의 예) 무릎을 꿇고 기도함:(단 6:10); 손을 들고 기도함:(시 28:2)
서서 기도함:(막 11:25)

4.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방법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으로, 간절한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 Marcus Dods(마커스 다드)

“비록 어머니 무릎 위에서 배운 것이지만 평생 걸려야 뜻을 알 수 있고 영원까지 걸려야 뜻을 알 수 있다”

• 켈만

“기도는 기술이 아니고 정신이다”

제 16 과

올바른 기도의 대상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읽을 말씀 / 마태복음 6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

찬 송 / 257장, 387장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을 잘못 정하여 엉뚱한 곳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① 양심에 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 양심에 대해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② 광명에도 기도합니다. - 퀘이커 교도는 광명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③ 자연에도 기도합니다. - 범신론자들은 ‘인간이 곧 하나님이며, 자연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④ 귀신에게도 기도합니다. - 무당

⑤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기도합니다. - 아텐의 사람들(행 17:23)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① 하나님의 부격(父格) ② 기도자의 자격(子格) ③ 사람 서로 간의 형제관계(兄弟關係)가 그것입니다.

1.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마 6:9)?

2.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시 115:3; 대하 20:6)?

하늘은 완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입니다. 모범적인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경외의 대상이 됩니다. '하늘'이라는 초자연성과 '아버지'라는 친밀성, 초월과 내재, 두려움과 사랑, 밖과 안의 조화입니다.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 즉, 하늘에 갇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주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청와대의 대통령'은 한국을 대표한다는 뜻이고, '백악관의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세계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존하며, 거룩하며,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3.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기도자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만도 17회나 사용하셨습니다. 최초 사용은 누가복음에서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눅 2:49)이고, 최후 사용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눅 23:46)에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들과 예수님은 형제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 ②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後嗣)입니다(롬 8:17).
- ③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요 3:6; 갈 4:6).

4.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공동체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자들인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요 20:17).

기도는 독점될 수 없습니다. 독선으로 홀려서는 안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여야만 합

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주위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효과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은 신뢰, 겸손, 조심스러움, 소망 등이어야 합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시 24:3, 4)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써 형제간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권에 대해 찬양해야 합니다.

제 17 과

거룩하신 이름 - 첫번째 간구

읽을 말씀 / 마태복음 6장 9절
사무엘상 12장 22절
찬 송 / 396장, 511장

◆ 이름이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은 '여호와'로 7,040회이고, 다음은 '하나님'으로 4,000회, '여호와 하나님'은 11,040회나 나옵니다. 가히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생활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름'이라 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압락나루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창 32:29) 한 것은 상대 장사의 성품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속성, 규례,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 9:10)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행 2:21)

1.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무엇입니까(출 3:13-15)?

2.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 전연 없고 진선미로만 꽉 차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께 대한 표현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만큼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이며 극진히 존경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에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것은 여호와와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거룩 사상은 십계명에서 주기도로 계승된 진리요, 이스라엘의 사상이요 성도들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101문답)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루려는 기도입니다. 그분을 거룩한 것으로 나타내고, 모시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요일 5:10; 롬 4:20; 잠 3:6)?

(1) _____

(2) _____

파스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시며"하는 이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결심이여 헌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도의 일차적인 관심은 내가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해 지는 비결은',

(1)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사 6:3).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딤후 4:4).

(2)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와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딤후 4:5).

(3) 예수 믿는 신자의 생활이 거룩해야 구원 받는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의 선한 행동을 부모에게 영광이요, 악한 행동은 부모에게 욕이 됩니다(잠 19:13).

(4)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전 12:13)

참고자료 /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약 일곱 가지로 불리워집니다.

① 여호와 이레(창 22:14) - 준비하시는 여호와

② 여호와 로프에하(창 15:26) -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 ③ 여호와 닛시(출 17:15) -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 ④ 여호와 삼마(겔 48:35) -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
- ⑤ 여호와 샬롬(삿 6:24) - 평강의 하나님
- ⑥ 여호와 기드켓느(렘 23:1) - 의로우신 하나님
- ⑦ 여호와 라하(시 23:1) - 목자되신 하나님

이러한 이름들은 여호와와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와 관계하시며, 우리의 생활을 간섭하시며, 주장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 17:45).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